사·부·대·중

십시일반의 보시행

이귀인
한국석불선양회 회장

경제불황·실업률 증가·쌀값 하락·정치권의 이전투구·정도를 지나친 지역이기주의(NIMBY 현상)의 만연 등 가슴을 짓누르는 총체적 위기 상황에서 맞게되는 금년 겨울은 유난히 삭풍이 몰아칠 것 같다.

모두가 '살기 어렵다'며 가슴을 웅크리고 옷깃을 여미며 주위를 돌아볼 엄두를 내지 못하니 성금이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각종 복지시설이 어려움에 처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고, 이 모든 여파는 결국 그곳에서 생활하는 어려운 이웃에게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연말분위기와 함께 구세군의 자선냄비가 등장하고, 시내 곳곳은 노숙자나 행려자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무료급식소가 늘고 있다. 반가운 일이지만 우리 불자는 깊이 자성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불교단체나 사찰은 이런 실천행에 너무나 인색하고 이는 다른 종교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대승불교의 이상적인 인격체는 보살이며, 이 보살의 수행 방법이 육바라밀의 실천이다. 육바라밀중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보시바라밀은 재가불자들이 가장 행하기 쉬운(?) 수행의 방편이요, 자기의 공덕을 키우는 복밭이며, 남을 더불어 살게하는 이타행인 것이다. 흡족하게 쓰고 남은 것을 남에게 베푸는 것은 생색내기는 될지언정 참된 보시는 아니다. 내가 쓸 것을 아끼고 절약해서 모은 성금에 깨끗한 마음을 담아 머무는 바 없이 보시할 때 청정한 보시인 것이다.

금년 겨울은 무척 춥다고 한다. 추운 겨울이 유난히 길게 느껴질 불우 이웃을 포근히 감싸주는 용기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내가 양보하는 자리, 내가 보시하는 그 마음자리의 여백이 바로 뭇 중생들이 모여 살 수 있는 보금자리인 것이다. '천지동근 만물일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십시일반의 정신으로 보시에 인색하지 않을 때 소중한 이웃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지낼수 있다.

목탁소리

MVP 김은중의 마음축구

김 원 우 (취재1부 차장)

지난 11월 25일 열린 2001년 서울은행 FA컵 대회 결승에서 후반 8분 결승골을 터트려 MVP(최우수선수)와 득점왕으로 뽑힌 불자 김은중 선수(대전 시티즌)가 "마음의 눈으로 축구를 했다"고 밝혀 화제다.

불자 이동국 선수(포항)와 함께 한국축구 차세대 스트라이커로 꼽히는 김 선수는 MVP에 선정된 후 주위동료와 언론에 처음으로 자신의 왼쪽 눈이 실명됐음을 밝혔다. "오직 감각에 의존해 몸을 날릴 수밖에 없었다"는 김선수는 시간이 날 때마다 소요산 자재암을 찾아 수행을 해왔다.

사실 축구라는 운동의 특성상 몇십km 속도로 빠르게 날아오는 축구공을 보며 한눈에 의존해 몸이 움직이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깝다고 축구전문가들은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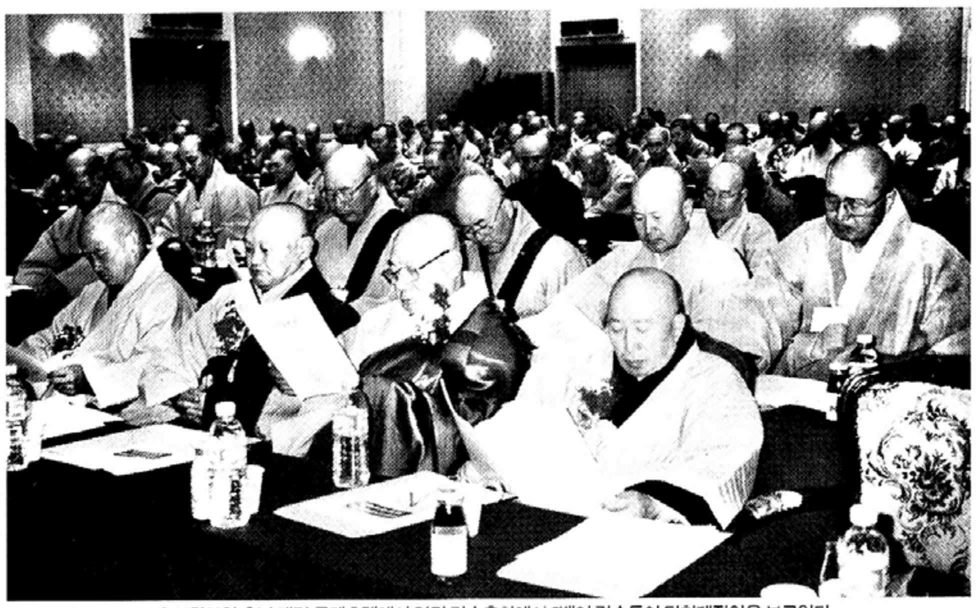
중학교 3학년 때 날아오는 축구공을 맞아 왼쪽 눈을 잃은 김선수는 감각적인 축구를 하기위해 '마음의 눈을 뜨자'는 생각을 갖고 시간만 나면 절에 가서 참선했다고 한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부터 '마음에 의한 슈팅'으로 유연한 드리블과 정확한 슛이 이어지면서 팀 내 최고 고액연봉선수가 됐다. 그러자 그는 이길 때마다 받는 수당 중 30만원을 불우이웃돕기기금으로 보시하여 불자로서의 면모까지 과시했다.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신체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보다 남을 생각하는 이타의 마음이었다.

김 선수의 삶을 보면 부처님께서 펼쳐놓은 '모든 것은 마음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진리가 새삼 새롭다. 길은 바깥에 있지 않고 내 마음에 있으며, 광대무변의 진리도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

수행을 통해 마음을 밝혔을 때 그 힘은 얼마나 강렬하며 자기뿐 아니라 이 사회에 얼마나 큰 빛을 발하는가를 김은중 선수는 우리들에게 표상으로 보여주고 있다.

경승단 운영 규정인 경승단칙이 11월 26일 충남 대덕 롯데호텔에서 열린 경승총회에서 경승단출범 14년만에 처음으로 제정됐다.
이번 단칙제정은 경승들이 경찰포교에 효율적으로 임할수 있게 조직기구와 역할등을 규정으로 정하고 체계화 했다는 점에서 범상치 않은 의미를 가진다.
특히 이번에 새로 제정된 경승단칙은 지난해 10월 31일 서울지역 경승실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올해 2월 강원지역 경승실장 간담회에 이르기까지 총 8회에 걸친 논의와 의견 수렴끝에 마련됐다. 이번 단칙 제정으로 경승들의 역할과 자격요건도 강화됐다. 군부대와 달리 사회속의 격리 공간에서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는 경승단의 이모저모를 살펴본다.



◇11월26일 충남 대덕 롯데호텔에서 열린 경승총회에서 2백여 경승들이 단칙제정안을 보고있다.

경찰포교 체계화 '재시동'

경승단 '단칙' 제정 내용과 의미

승랍 10년이상 경승위촉
전국 14개 지단 750명 활동
유치인·불량청소년 등 선도

경승이라 함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스님으로서 경승단칙에서 정한 자격과 절차에 따라 위촉돼 경찰청이나 일선 경찰서에서 정기적으로 포교를 담당하는 스님을 말한다. 이런 임무를 맡고 있는 경승들은 경찰행사시 요청에 따라 종교의식을 주관하기도 하며, 경찰서 내 유치인, 우범불량 청소년, 자활근로대원, 윤락여성 등에 대한 포교활동을 편다. 이외에도 경찰 유가족과 부상자들의 간병 또는 위로 활동도 한다.

경승이 되려면 4년제 정규 대학을 졸업했거나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사교과 이상 수료) 10년 이상의 승려 생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이런 자격을 갖춘 뒤 소속 지단장의 제청으로 경승단장의 추천을 거쳐 해당 경찰기관장이 위촉하는 절차를 밟으면 된다. 위촉 기관은 3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경승제도를 시행하게 된 계기는 77년 당시 조계종 포교원장 암도 스님이 국립경찰대학에 파견돼 법사로 활동하면서부터 였다. 이어 경찰 포교의 필요성을 느낀 조계종 포교원은 경승제도를 제도화시켜 줄 것을 내무부 장관에게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이후 86년 3월 조계종령 62호를 발해 경종승 준칙 제15조를 제정 공포한 뒤, 5월에 처음으로 150여명의 경승을 배출했다. 현재 경승은 전국적으로 약 750명 정도가 된다. 이중 5백여명은 조계종 스님이며 나머지는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등 여러 종단 스님으로 구성돼 있다. 경승은 경찰조직의 규모에 따라 정원이 다르다. 현재 경승실은 경찰청 산하의 경찰대학, 경찰종합학교, 중앙 경찰학교, 국립경찰병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6곳과 서울을 비롯한 지방경찰청 14곳 등 총 280여곳에 마련돼 있다. 이중 경찰청과 그 산하에는 4명, 경찰서와 기동대에는 5명까지 경승을 둘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승실이 정원을 채우는 경우는 드물다. 또 지난 10월 기독교 단체의 원주경찰서내 경승실 불상 봉안 반대 집회를 계기로 경찰청이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280여 경찰기관내 불상이 봉안된 경승실은 54곳이다. 하지만 11월 28일 수원 중부 경찰서 경승실에서 불상을 점안하는 등 전국 각 경승실에서 꾸준히 불상 봉안을 추진하고 있다.

원주경찰서 경승실 현각 스님(성불원 주지)은 "경찰 조직의 특성상 경찰관들 중에서도 자신의 종교가 불교라는 것을 드러내 놓고 신행활동을 펴는 이들이 많지 않다"며 "이들이 마음껏 종교활동을 하면서 지역민들의 치안을 위해 힘쓸 수 있도록 경승들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일기자

"지단장회의 정례화 공의 수렴"

인터뷰 경승단장 도영스님

"경승단이 창립된 이후 총회를 개최하고 단칙을 제정한 것은 그만큼 경찰 포교가 진일보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단칙 마련은 경승단 14년을 중간 결산하는 의미에서 조직틀을 정비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1월 26일 대한불교 경승단장으로 취임한 도영 스님(조계종 포교원장)은 경승총회 개최와 단칙 제정의 의미를 밝혔다.

최근 경찰불자회가 조직돼 경찰 포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도영 스님은 지단장 회의를 정례화해 지방청별로 공의를 수렴하고 효율적인 운영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스님은 이미 경찰불자들의 통일적인 법회진행을 위해 경찰법요집과 불교상식 책을 배포했으며, 앞으로도 경승 연수회와 경승 발전 기원 법회 등도 개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주일기자

경승단 연혁

■경승의 시초
▲77년 국립경찰대학에 당시 포교원장인 암도 스님을 상임교수로 파견해 법사로 활동한 것이 시초가 됨.
▲81년 10월 조계종 포교원에서 경승제를 제도화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내무부 장관에게 제출함. 이때부터 종단 염원 사업이 됨.
■경승단 제도화 과정
▲86년 3월:종무회의 결의로 종령 62호를 발하여 경종승준칙 전문 15조를 제정·공포함.
▲86년 4월:스님들을 초청해 경찰관에 대한 정서함양 교육 실시를 해도 좋다는 내용의 공문을 내무부로부터 통지 받음.
▲86년 5월:경승제도가 명문화되고 제도화 됨. 또한 종무회의에서 '경종승자격 심의 특별 전형위원'을 선정함. 교구본사 및 직할사암에서 추천된 2백여명 중에 170명을 선정해 경종승 법사로 위촉
▲86년 7월:신규 경승교육을 실시해 230명의 경승을 배출.
▲86년 12월:내무부 예규 제638호로 '경승운영규정'이 제정됨.
■경승단 출범
▲87년 1월 경승단 발대식 거행 후 제1차 경승연수교육을 실시해 368명의 경승을 추천.
▲87년 3월 제2차 경승연수교육을 실시해 131명의 경승을 추천.
▲87년 7월 제3차 경승연수교육을 실시해 119명의 경승을 배출.
■주요 활동
▲94년 7월:전국 경찰기관에 545명이 경승으로 위촉돼 활동함.
▲97년 1월:대한불교경승단 창립 10주년 기념대법회 봉행
▲99년 경승단보인 '등불'지 발행
▲2000년 10월:서울지역 경승실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8개 지역 경승실장 간담회 개최, '전국경승지단장회의'에서 경승단칙의 초안을 심의·의결.
▲2001년 11월: 경승총회 및 사회안정과 경승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원 대법회 봉행. 경승단칙 제정.

도서출판 참수행

고도의 참수행인의 체험담

참수행과 참수행 건강법 책이 새로 나왔습니다.

참수행

이책은 고도의 참수행인이 실제 체험한 초자연적인 삶과 참수행 방법의 모든것을 상세하고 자세히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현세와 공존하며 사는 귀신의 세계및 죽음후의 알 수 없는 수수께끼의 사후세계(靈 의世界)와 이 마음에 지배를 받는 육체의 고통인 질병과 정신적 고통을 마음으로 말끔히 해소하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고도의 참수행인만이 훤히 보고 알 수 있으며 나아가 노력 여하에따라 육체를 초월한 초월적 (마음) 참행복을 영구히 얻으며 영원하고 영구한.대자유를 얻는 목적도 수록하였습니다.

각권 10,000원

도서출판 참수행
TEL : 02-2244-6002 HP : 011-707-6002
http://chamsuhaeng.pe.kr
http://참수행
E-mail : champyc@chamsuhaeng.pe.kr

卍 대창 불교 건축
◦사찰 대웅전 건축 전문 업체
◦고건축 시공
◦문화재 복원 개보수 업체
◦한옥(전통한식)
◦황토방 시공
※ 불사 하실 스님 상담 환영

卍 대창 목재
* 태백산 일대에서 벌목한 육송
◦판매 종류규격
◦연목 : 12자~24자까지 5회~8치
◦원목 : 9자 : 1자 ~ 2자 2치
12자 : 1자 ~ 2자 2치
18자 : 1자 ~ 1자 8치
20자, 24자 : 1자 ~ 1자 8치
30자 : 1자 ~ 1자 7치
36자, 40자 : 1자 ~ 2자까지
※ 원하시는 치수로 제작 가능합니다. 주문 연락 주십시요.

(주) 대창종합개발
대표전화 02)595-1573 FAX 02)595-1575
H·P 019)327-0374
이종봉 합장

山蔘의 효력이 없다고요?

만삼 蔓蔘(黨蔘)

최상의 신비스러운 영약!

저는 강원도 정선 불암사 신도로서 주지스님의 권유로 심신산골에 山田을 마련하여 만삼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옛부터 전해내려오는 이야기는 여자들에겐 산삼보다 효능이 좋다하여 명문대가 부인들만이 해산후 몸조리에 사용할정도로 귀한약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삼은 독성이 전혀없고 성질이 체질에 관계없이 누구나 먹을 수 있으며, 어떠한 식품과도 궁합이 잘 맞는 좋은 약재라 합니다.

약효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
◆ 기관지가 좋아졌다. ◆ 만성위염이 나았다.
◆ 사지무력증이 나았다. ◆ 만성피로가 없어졌다.
◆ 아프던 무릎이 안 아프다. ◆ 몸에 부기가 빠졌다.
◆ 손발 저린것이 없어졌다. ◆ 천식이 떨어졌다.
◆ 인파선이 나았다. ◆ 자궁 물혹이 없어졌다.
◆ 변비가 낳았다. ◆ 혈색이 좋아졌다.

많은 분들이 만삼을 복용후에 자랑을 하십니다. 이와 아울러, 중국문헌에는 고려인삼보다 蔓蔘(黨蔘)이 좋다고 실려져 있습니다. 장뇌산삼(長腦山蔘)을 복용하고도 별효험을 못보신 남자, 여자분들이 만삼(蔓蔘)을 드시고 탁월한 영험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아 주문이 쇄도하고 있읍니다.
❀ 스님들께는 시주불사하는 심정으로 염가에 드리고저 합니다. (시중가 Kg당 3만5천원을 1만5천원에 드리겠사오며, 단, 10Kg 단위 이상만 택배가 가능합니다.)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동면 호촌리 323번지
● 연락처 : (033) 563 -8292, 562-2165
● 성 명 : 심 정택 H·P 016-345-8292
● 농협계좌번호 : 315024-52-012392 (예금주 : 심정택)

부지안내

세계중심의 "국제 자유도시" 제주도
환상적인 미래의 섬 제주도
최고의 경승지에 인연있는 한분을 모십니다.

❖위 치 : 제주도 남부지역
❖총부지 : 1380평
❖지 목 : 대지 및 전(준농림)
❖시 설 : 포장도로 접
전기 전화 수도
기초공사 완료
요사체(18평)있음
❖특 징 : 정남향 주산 좌청룡 우백호 형성
한라산 마라도 바다 조망 최고
야자수 유실수등 20여종 1000여주
❖가 액 : 총 4억

064-739-3826
018-606-4555